

한국과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실상과 그 의미

김 채 수*

차 례

- I. 서 론 : 한국과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의 재고 의미
- II. 본 론
 - 1. 한국의 언문일치운동의 성립과 전개양상
 - 2. 일본의 언문일치운동
 - 3. 중국과 서구의 언문일치운동
 - 4. 한·중·일과 동서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특징
- III. 결 론 : 한국과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의 의미 재고

I. 서 론 : 한국과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의 재고 의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등의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의 실상을 고찰해서 그것의 의미를 재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문일치운동이 한국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10년대 후반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그 보다 30 여 년이 빠른 1880년대 후반이다. 당시의 언문일치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해, 글로 적는 말(文語)을 입으로 하는 말(口語)에 일치시키려 했던 운동을 가리킨다. 그러한 운동 결과 현재 우리는 언어란 말과 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글 중심보다는 말 중심의 언어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글 중심의 언어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문일치의 문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의 결과로서 취해진 것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으로서 글(文)보다는 말(言) 중심의 언어관에 입각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그러한 운동을 통해 글 중심의 언어에서 말 중심의 언어로 전환해 나왔다고 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들에게 그러한 말 중심의 언어관을 가져다 주었던 서구인들에게는 지난 20세기 초부터 언어가 기호의 하나로 파악되어 기호론(semiotics)적 입장에서 언어가 연구되어 나왔고, 또 20세기 후반부터는 그 기호론에 입각해 문화기호론(semiotics of culture)이 확립되어 나왔다. 문화기호론에서는 청각보다는 시각이 더 강조됨에 따라, 다시 말해서 청각을 통한 전달보다는 시각을 통한 전달이 더 강조됨에 따라 문화기호의 하나로서의 언어에 있어서도 청각적인 면보다는 시각적인 면이 강조됨으로써 청각중심보다는 시각중심의 언어관이 형성되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은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은 본고를 통해 이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인이 여기에서 논하려는 언문일치운동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당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었다. 또 그러한 언문일치운동은 그로부터 3,4백 년 전에 서구문화권에서도 일어났었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선 보다 객관적으로 언문일치운동의 본질을 규명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민족이나 국민문화연구 차원의 시각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내지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을 접근해 보기로 한다.

최근까지의 언문일치운동은 문학이나 언어현상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인은 그것을 글로벌적 관점에 입각해 문화적 현상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또 본인은 한국과 일본과의 비교는 물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것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한국과 일본 등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의미를 재고해 보기로 한다.

II. 본 론

1. 한국의 언문일치운동의 성립과 전개양상

1)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 이전의 문체들의 존재양상

한국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은 그 문(文)의 종류의 차원에서 파악해볼 것 같으면, 국문(國文), 국한혼용문(國漢混用文), 그리고 한문(漢文)·영문·일문·불문 등과 같은 외국어문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한문, 이두, 국한문, 국문에 의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기록되었다. 그것들이 그들의 표기수단으로 성립되어 나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중국의 황하 쪽으로부터 한반도에 한문이 전래되기 이전까지는 한민족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낼 어떤 문자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반도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가게 되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한문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위만조선(衛滿朝鮮, 194~108, BC) 경부터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것으로는 위만조선이 망하고 낙랑이 설립된 BC 108년 경에 쓰여진 고조선(古朝鮮)의 배사공 곽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의 작으로 알려진 한시 「공후인」(箜篌引), 중국 대륙에서의 전한(前漢)이 후한(後漢)으로 전환해 나왔을 무렵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유리왕(瑠璃王, 19~18, BC)때의 한시 「황조가」(黃鳥歌)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국초(國初)에 『유기』(留記) 100권이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한대(漢代)에서 6조(六朝, 212~589)로 전환해 나왔을 무렵, 고구려에는 372년에 태학(太學)이 세워져 유교교육이 행해졌고, 동년에 중국의 전진(前秦)으로부터 불경(佛經)이 전해졌다. 또 백제에서는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때 「서기」(書記)가 쓰여졌다. 그 후 신라에서는 진흥왕 6년(545년)에 「국사」(國史)가 편찬됐던 것으로 되어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본격적으로 수입해 쓰기 시작했던 것은 현존 향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진평왕대(眞平王代, 579~632)의 「혜성가」(擘星歌) 이후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BC 2세기 말경부터 한자·한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6, 7세기

부터는 그것들로 본격적으로 수입해 한문(漢文)으로도 자신들의 의사를 기록해 갔다. 이 경우 한자(漢子)란 중국의 황하유역지방에서 BC 18세기 경부터 시작되는 은(殷)의 갑골문자(甲骨文字), BC 12세기부터의 주(周)의 금석문자(金石文字)와 대전(大篆), 진(秦, 진시황의 전국통일과 문자통일 BC 221, 멸망은 BC 202)의 소전(小篆), 전한(前漢, BC 221~AD 8)의 예서(隸書)와 후한(AD 8~222)의 해서(楷書) 등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고정되어 나왔다. 한문이란 기본적으로 한나라 시대의 인간들에 의해 쓰여지던 말이 한자로 기록된 문장체를 가리킨다.

한국인에서의 한문은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6, 7세기 경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리고 그것은 15세기 중반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갑오경장까지 사대부(士大夫)의 대표적 표현수단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 한문이 한반도에서 쓰여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구결(口訣)이 달려 사용되었다. 구결이란 한문에 붙여진 우리말 토씨이다. 그러다 그 구결이 달린 한문으로부터 이두(吏讀)라고 하는 표기법이 성립되어 나왔다. 이두란 한자의 음과 훈(訓, 새김, 의미)을 빌어 우리말 형태부분은 그것의 음을, 그 음의 의미부분은 그것의 새김을 취해 우리말을 적어냈던 표기법을 가리킨다. 한문(漢文)이 고관(高官)들이 쓰는 문장이라면 이두(吏讀)는 서리(胥吏)들이 읽고 쓰는 문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성립은 고구려 초부터로 파악되고, 향가 『혜성가』의 성립 전후를 기해 확립된 것으로 고찰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와 같이 이두 표기가 6세기를 기해 확립되어 나와 당시 신라인들의 말들을 토씨까지 다 기록해 내게 됨으로써 고려시대로 들어와서는 『균여전』(均如傳, 1075)에서와 같이 그것이 향찰(鄕札)이란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¹⁾ 또 그것이 그 시대로 들어와서는 공문, 관용문 등의 문체로 정착되어 나왔다. 그 후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한글창제를 계기로 쇠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시 소송문, 고시문(告示文), 보고서 등의 『관부의 공사문서(公私文書)』에서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²⁾ 이 경우 이두(吏讀)와 향찰(鄕札)을 구분해 본다면, 『전지는 준(準)국문체이나 후지는 순(純)국문체』라 할 수 있다.³⁾

국한혼용문의 경우는 한글 창제 이후에 형성된 문장체인데, 그 기원은 구결이 붙여진 한문과 그것으로부터 출현된 이두(吏讀)로부터 찾을 수 있다. 국문(國文)은 한글창제를 계기로 순수 한글로 쓰여진 문장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한글창제 이전에 쓰여져 왔던 향찰 계열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구어문(口語文)을 의미하는 언문(諺文)이라 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 문장이나 영어문장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인 19세기 말까지 이상

과 같이 한문, 국한혼용문, 국문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왔었다. 한국인들은 그 후 20세기로 들어와서 이들 외에 일본어, 영어 등으로도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해 가기에 이른다.

19세기 후반 한국이 근대의 서구와 일본의 문물을 접하기 직전, 한국인들에 있어서의 대표적 문체는 역시 한문이었다. 근대 이전 한국사회를 주도해 갔던 사람들은 사대부(士大夫)들이었다. 그들의 일반적 의사소통문들은 한문이었다. 이두, 향찰은 주로 서리, 중인 출신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었다.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고, 갑오경장 때까지도 사용되었다. 국한혼용문은 한글창제 이후 성립되어 나와, 특히 한시나 한문 등을 번역해 내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나갔다. 그것은 그 후 차츰 이두·향찰문체를 몰아내고 그의 사용영역을 확대시켜 나가, 영·정조 이후에 와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두·향찰의 자리를 차지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국문은 주로 일반 서민들과 궁중여성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글이었다.

2) 언문일치운동의 발단과 국한혼용문

한국인들은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근대 일본과 서구의 문물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일본과 서구의 언문일치문들을 접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계기로 그때까지 그들의 가장 대표적, 공적 표현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한문을 버리고 그들 사회의 서민들이나 여성들이 사용해 왔던 ‘국문’을 전용하자든가, 국한혼용문장을 채택하지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들은 당시의 한국인들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문 등과 같은 문어(文語)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구어(口語)와 유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문어를 통한 의사전달이 당시 한국인들의 구어(口語)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문(諺文)을 통해 의사전달을 행해가는 서민이나 부녀자층에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언문일치운동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 1883년 10월)의 국한문체 채용의 시도를 통해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후 「한성순보」의 후신 「한성주보」(漢城周報, 창간호 1886년 1월 25일 발행)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언문일치운동의 발단으로서의 공문에서의 국한문체 사용의 최초의 시도는 조정의 관보 「한성순보」를 창간할 당시 그 관보창간을 주관했던 박문국(博文局)의 주사(主

事) 강위(姜瑋)에 의해 쓰여졌던 미발표 창간사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미발표 창간사로 끝나고 말았던 것은 당시 활자미비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구파의 반대가 그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강위는 강화도 조약(1876년 2월) 참석 이후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었던 인물이다. 그가 창안했던 국한문체는 한문체에 궁중소설(宮中小說)의 구두언어(口頭言語)적 문장들을 섞은 것이었다. 그가 그러한 국한문체를 창안해 시도했던 것은 관보가 한문체로 쓰여지면 사대부 계급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신문의 본래 목적인 민중을 각성시킨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민(庶民)과 사대부층이 함께 읽을만한 그러한 국한혼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한성순보」의 후신 격인 「한성주보」가 국한혼용체를 취해 창간되어 나오게 됨으로써 언문일치운동의 근대적 기점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성주보」가 국한혼용체를 취해 창간되어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순보」의 창간은 일본의 민중교육의 선각자인 동시에, 일본에서 근대 「국가주의(nationalism)의 원형(原型) 창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⁵⁾ 강화도 조약 체결(1876) 이후 한국은 몇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해 가고 있었는데, 제3차 수신사는 조정에서 개화파로 알려진 박영효(朴泳孝, 1861~1943), 김옥균(金玉均, 1852~1893) 등에 의해서 1882년 8월에 행해졌다. 그 전해에 고종의 특명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옥균은 한국의 빈약은 일반대중의 기술교육의 부재와 상층계급 인사들의 무지와 몰지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깨달은 나머지, 조선을 구하려면 민중을 교육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주창해 갔었다. 박영효는 그런 주장을 하는 김옥균과 동행해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다. 그들은 후쿠자와로부터 개화문명과 국정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그때 그들은 그로부터 「국내민중을 계몽시키려면 신문을 창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⁶⁾ 귀국 후 박영효는 한성판윤(漢城判尹)이 되어 신문창간을 착수하였고, 후쿠자와와의 추천으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 등이 한성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다. 그 결과 총리아문(總理衙門) 박문국(博文局)에서, 임오군란(1882) 후 조선정부의 고문이 된 이노우에 가쿠고로를 주재(主宰)로 하고, 강위(姜瑋) 등을 주사(主事)로 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 「漢城旬報」가 창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듬해인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수구파들이 박문국사(博

文局舎)를 습격해 불을 질러버림으로써 더 이상 신문을 낼 수 없게 되었다. 갑신정변 중 박문국사는 물론, 일본공관도 소실되는 동시에 일본인 다수도 사살당했던 탓으로 일본은 그 책임을 물어 그 이듬해인 1885년 1월 한국과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체결은 내한한 일본의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 의해서 행해졌고, 그 현장에 일본의 「지시신포」(時事新報)의 기사를 겸하고 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도 나타났다.⁷⁾ 이후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박문국 주재(主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문부활에 힘써가게 된다. 그는 민중계몽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복간될 경우 한국인의 글인 한글로 쓰여져야 한다고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해 갔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외아문협변(外衙門協辦) 김윤식의 주선으로 고종의 율허(允許)를 얻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본에서 새로 기계와 활자를 구입해 그해 12월 그러니까 1885년 복간활동을 개시하여, 김윤식을 총재로 해서 「한성주보」(漢城周報, 창간호 1886년 1월 25일)가 국한문혼용체를 취해 창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에 있어서의 한국인 고유의 한글문장이란 국한문혼용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말이 기초가 되어 성립된 한문이 공적 문장으로 통용되었고, 「국한혼용문」, 「국문」 등이 사적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한혼용문」에 해당되는 「화한혼용문」(和漢混用文)이 헤이안(平安)시대에 성립되어 나와 그 때 이래 공적 문장으로 통용되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한성주보」의 문체로 채택한 「국한혼용문체」는 설혹 그것이 한국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의 「화한혼용문체」로부터 모방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의 한문에 눌러 사적 문체로 밖에는 그 역할을 행해가지 못하는 한국의 「국한혼용문체」로 생각했던 것이었다.⁸⁾

사실상 강위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성순보」가 발행되어 가는 도중에도 국한혼용문에 의한 기사체(記事體)를 연구해 갔었다. 그는 「환관(宦官)을 통해 내인(內人)들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언문(諺文)서적들을 입수해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국한혼용문의 새 문체를 만들어 보았다」⁹⁾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강위에 의해 연구되어 만들어진 그 국한문혼용문체를 「한성주보」의 기사체로 채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일본인의 주도 하에 행해졌던 「한성주보」의 국한문혼용문체 채용을 계기로 해서 시발되었다. 「한성주보」의 국한문혼용문 채택 이후의 국

한문혼용문체는 당시 민씨일파인 수구세력의 압력에 의해 1888년 박문국이 폐지됨으로써 「한성신보」도 폐간되어 더 이상 일반화되어 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몰려들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 정착해 1894년 일문 신문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창간하였고, 이어서 1895년 1월 22일부터는 국문판 「한성신보」를 격일간으로 발행해 간다.¹⁰⁾ 그것과 때를 같이 해, 1881년 도쿄에 유학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이 국한혼용문으로 간행되어 나와 널리 읽혀지게 됨으로써 국한혼용문은 한층 더 일반화되어 나왔다.

유길준은 1880년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을 거쳐 도미, 워싱턴·보스턴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유럽 각 국을 거쳐 1884년에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이후 갑신정변으로부터 화를 당해 6년 간의 구수(拘囚)생활을 겪으며 『서유견문』을 저술한다. 그가 본서 저술 시 국한문체를 택한 것은 본서를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민중의 지혜를 계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언문운동의 전개와 국문 운동

한편 한국에는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을 계기로 신식교육이 일어남에 따라 국자보급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것은 국어운동, 국문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한국만을 방언(方言), 이언, 언어(諺語), 속어(俗語)했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계기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한국어를 국어(國語)라 부르게 되었고, 그것을 한글로 기록해 온 언문(諺文)도 국문(國文)이라 일컫게 되었다.¹¹⁾

그러한 국어·국문 운동들은 그동안 순 한문으로만 쓰였던 당시의 관보(官報)와 공사문서(公私文書)들이, 갑오경장이 일어나 그 해 11월에 모든 법령과 칙령이 국문을 본(本)으로 해서 한문부역(漢文附譯)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해 발표된다는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국한문으로 쓰이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가서는 고종의 교육입국칙서가 국한문으로 내려짐에 따라 그 칙서에 의거해 소학교령이 발표되어, 학교교과에 국어가 주요과목으로 부과되어 국어교과서가 편찬됨으로써 한층 더 구체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1894년에 귀국한 서재필(1866~1951)이 한국 최초의 순 국문판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해 민중의 독립정신 고취에 전력을 다해갔다. 언문일치운동의 실천 수단으로서의 「독립신문」은 순한글 표기, 띄어쓰기 실행이라는

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 가는 서술 형식을 취해 쓰여진 것으로 고찰된다.

그 후 논자들의 말에 대한 관심은 최남선의 『소년』(1908. 11~1911. 5), 『시문독본』(1916) 등을 통해서 구어(口語)에 대한 관심 쪽으로 확장되어 나왔다. 『소년』(少年)은 한국 최초의 잡지이다. 2차에 걸쳐 일본 유학을 행했던 최남선이 귀국해 창간한 월간 계몽지이다. 당시 19세의 최남선은 창간호 『소년』에 『혜에게서 소년에게』 등과 같은 한국 최초의 신체시의 발표를 통해 당시 한문투의 문장을 지양하고 구어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어체 문장을 성립시켜 나갔다. 후자의 『시문독본』에서의 『시문』(時文)이란 당시의 시대적 감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문장이란 당시의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기록한 문장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언문일치의 추진자들의 언문일치의 문장 작성의 한 방법으로서의 일상어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도쿄 유학생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예컨대 그것은 1904년 도쿄 유학을 떠났다가 3개월만에 돌아와 2년 후에 재차 도일해 그대로 얼마 못 있고 다시 귀국해 그 이듬해 출판사를 차려 『소년』을 간행했던 최남선을 비롯하여, 이광수(李光洙, 1892~?), 최승구(崔承九, 1892~1917), 김동인(金東仁, 1900~1951)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광수는 1905년 도일해 그 해 11월에 귀국했었는데, 다시 그 이듬해 도일해 1910년에 귀국한다. 그는 정주 오산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그 해 구어체의 새 문장으로 단편 『무정』을 『대한홍학보』에 발표하고, 최남선의 『소년』에도 구어체로 글을 발표해 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14년 4월에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 학우회 기관지 『學之光』(학지광, 1930년 4월 중간, 연 2회)이 창간됐다.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1910년에 도일해 게이오대 예과 과정을 수료한 시인 최승구(1892~1917)는 『학지광』제 2호(1914. 9)의 『정감적 생활의 요구』(情感的 生活의 要求), 『남조선의 신부』(南朝鮮의 新婦) 등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구어체 문장을 형성시켜 나갔다.

구어체(口語體)문장이란 기록자가 처해있는 당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낸 문장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구어체 문장의 대립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문어체(文語體)문장은 기록자가 처해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의 인간들의 말을 기록한 문장들이다.¹⁵⁾ 따라서 구어체와 문어체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단정의 표현과 시제(時制)의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의 그것들은 문말(文末)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구어체의 확립을 가능케 했던 그러한 단정과 시제의 표현이 이청원(李靑原)도 주장하고 있듯이, 「하지광」에 게재된 최승구의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확립된 구어체 문장은 1916년에 다시 도입해 유행 중이던 이광수가 구어체로 쓴 장편 『무정』을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해 감으로써 더욱 일반화되어 나왔다. 그러다가 1919년 2월 김동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종합문예동인지 「창조」(創造, 창간호에서 제 7호까지는 도쿄에서, 제 8호와 제 9호는 서울에서 간행)가 창간되어 그의 단편소설 『약한자의 슬픔』 등이 구어체로 쓰여지게 됨으로써 구어체가 완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현대 언문일치체문장은 그것이 한문체로부터 벗어나서 국한혼용문체로, 또 국문사용운동, 속문사용운동 등을 통해 확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2. 일본의 언문일치운동

1) 용어「언문일치」의 성어와 언문일치운동의 성립배경

「언문일치」(言文一致)라는 말의 성립은 하기의 문장을 통해서 행해졌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¹⁶⁾

언어와 문장과의 일치시켜 보려면 작성한 문장을 낭독해, 듣는 자로 하여금 즉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즉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그것이 곧 언문일치가 된다.(하선 본 논자)¹⁷⁾

상기의 인용문은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 1830~98)의 「문장론을 읽다」(文章ヲ讀ム, 「도쿄학사회원 잡지」〈東京學士會院雜誌〉 17권 1호, 1885년 2월)에 나오는 문장이다. 간다 다카히라는 한적, 난학을 배워 1862년에 「반쇼시라베쇼」(藩書調所)의 교수가 됐던 계몽적 관료학자이자 양학자였다. 그는 『경제소학』(經濟小學, 1867)의 번역을 통해 서양 경제학을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학자였고, 메이지초에 형성되었던 계몽적 지식인 단체 「메이로쿠샤」(明六社)에 참가하기도 했던 학자였다. 그의 「문장론을 읽다」는 그 전년 1884년경부터 일기 시작한 소위 서구화 만능주의의 바람을 타고 새롭게 제기된 속어(일

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口語) 문장사용운동의 발단 과정에서 쓰여진 문장이다.

당시 일어났던 속어문장 사용운동은 「언문일치」라는 말을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년 후에는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로 하여금 『언문일치』(1986. 3)라고 하는 저서를 출판케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 1887. 6~88. 8), 야마다 비묘(山田美妙)의 『풍금운률일절』(風琴調一節, 1887. 7~9) 등을 통한 근대언문일치에 소설문체의 확립까지 이어져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의 그러한 언문일치체문장을 쓰자는 주장은 근 20여 년 전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양서역관(譯官)이었던 마에시마 히소카(前島密)가 쇼군 도쿠가와 게이키(將軍 德川慶喜)에 건백(建白)한 「한자 폐지에 관한 의논」(漢字御廢止之議, 1867. 12)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¹⁸⁾ 그렇다면 당시 일본에서 그러한 주장은 어째서 제기되어 나왔던 것인가? 우선 이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언문일치」의 성어(成語) 시점으로부터 이미 백 여 년전 경부터 화란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언문일치의 장점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어 왔었다.¹⁹⁾ 오스키 겐타쿠(大槻玄澤, 1757~1827)의 『난학 입문서』(蘭學階梯, 1783)에 「화란어의 문장이 사리(事理)를 일상어로 쉽고 자세히 설명해 냄으로써 화란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이처럼 서구의 문장들을 접해 오던 일본의 양학자들은 서구의 문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부터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러한 발견을 계기로 일본의 문장이 그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문장어들은 서구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과 같은 말들인데 일본의 문장어들은 그렇지 않고, 문장 속에서 쓰는 말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인들은 문장으로 쓰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던 것인가?

일본인들이 문자로 자신들의 의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은 한자가 일본에 전래됨으로써였다. 일본에 한자·한문이 전래되어 일본인들이 배우기 시작했던 시점은 5세기 초로 이야기되고 있다.²⁰⁾ 한자·한문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세기후인 7세기 초의 스이코 덴노(推古天皇, 592~628)로 고찰된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것을 최초로 사용해 왔던 방법은 『17조 헌법』(十七條憲法, 604), 『삼경의소』(三經義疏, 610년대) 등의 경우처럼 그들의 사상을 한문으로 기록함으로써였다. 일본인들의 한문만을 통한 자신들의 사상, 감정의 표현은 예컨대 「간쿄지로반메이」(元興寺

露盤銘, 596) 등과 같은 금석문(金石文) 등에서부터 발견되는 변체한문(變體漢文), 다시 말해 일본어 어순에 따라서 한자를 나열한 부분이 많은 한자로 된 문장이나 『고사기』(古事記, 710)와 『니혼쇼키』(日本書紀, 720) 등에서와 같이 정식의 한문으로 행해졌었다. 그러다가 그 후 일본인들은 한문을 통한 자신들 사상, 감정들의 표현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한자로부터 음(音)을 빌려서 그 음으로 당시의 자신들의 말을 표현해 가기도 했고, 한자로부터 훈(訓)을 빌려서 당시 자신들의 말을 표현해 가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요가나(萬葉假名)표기가 형성되어 나왔고, 한문을 일본어로 읽어 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문훈독체(漢文訓讀體)라든가 일본어를 한문으로 기록해 가는 가정에서 형성된 기록체(記錄體) 등과 같은 변체한문체 등도 형성되어 나왔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 전부 한자로 쓰여진 것들이다. 따라서 한자의 음과 훈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말을 기록해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9세기 중반 경에 와서 한자의 약자를 가지고 가타카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의 초서를 가지고 히라가나를 만들어 내서 그것으로 당시 그들의 말을 기록해 가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奈良)시대에 쓰이던, 한문, 변체한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고킨와 카슈』(古今和歌集, 905)가 편찬됐던 10세기 초의 일본에서는 한문, 변체한문, 가나문 등으로 쓰여진 문장들이 병존해 있었다. 그로부터 1세기후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11세기초)가 나온 11세기 초에 와서는 가나문이 완성되었고, 또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등이 성립되어 나와 가나문의 요소와 한문훈독의 요소가 혼합된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도 성립되어, 『헤이케이모노가타리』(平家物語)가 나온 11세기말에 가서는 그것이 확립되어 나옴으로써 현재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이루어져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화한혼효문은 한문, 변체한문, 가나문 등이 기초가 되어 성립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문이란 기본적으로 한(漢)대의 문장이란 뜻으로 한(漢)나라의 문자, 즉 한자(漢字)로 쓰여진 문장의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에 있어서의 한문(漢文)이란 일반적으로 「한자로 쓰여진 문장」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한나라시대의 인간들의 구어(口語)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 문장이다. 야마토(大和), 나라(奈良), 헤이안(平安) 시대에 걸쳐서 일본인들에 의해 읽혀졌던 한적들은 6조(六朝)를 거쳐 당대(唐代)에 걸쳐 쓰여진 것들로서 특히 6조에서 당까지의 것들은 당시 유행했던 사육병려문(四六駢麗文)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병려문이란 6조 이전의 고

문(古文)에 대해 대구(對句)를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4자와 6자가 자주 쓰였다고 해서 사육문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중국은 당대(唐代)로 들어와서 병려문을 버리고 6조 이전의 고문(古文)을 쓰지는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당대로 들어와 고문에 의한 문장들이 많아졌었다. 따라서 병려문과 고문이 일본의 문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²¹⁾

가나문의 경우는 그것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헤이안 시대의 귀족사회, 특히 궁정여성의 일상 구어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 문장이다.²²⁾ 따라서 화한혼효문에는 한문투와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의 구어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로 들어와서 가나문과 가나문의 문법에 기초해 성립되어 나왔던 화한혼효문은 가마쿠라시대의 인간들의 일상구어와 차이가 생겨남으로써 그 후부터의 화한혼효문은 문어문(文語文)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확립되어 나온 한문, 가나문,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은 바쿠후 말(幕府末), 메이지 초에 대표적 문장어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 문장들은 나라,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의 일상구어, 6조 이전의 고문, 6조 이후의 병려문 등을 기초로 해서 형성됐던 것이지만, 에도시대 이후 대륙으로부터의 신유교서적과 청대의 백화문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에도시대 이전과는 또 다른 문장어로 변환해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바쿠후 말, 메이지 초 당시의 일본인들의 문장어가 당시 그들의 일상구어와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은 일상구어로 쓰여진 서구인들의 문장들을 접해 그것들을 번역해 가는 과정에서 구어와 문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해 가는 자신들의 언어활동으로부터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일상구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어를 만들어 내자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2) 언문일치운동의 발단과 전개양상

현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구어라 하고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말을 문어라 한다. 언문일치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바쿠후 말, 메이지 초에는 구어와 문어가 일치되어 있지 않았었다. 바쿠후 말에서 메이지 10년까지의 일본의 문장계(文章界)에는 천황의 부친인 상황(上皇)이 국정을 행해 갔던 인세이기(院政期, 1086~1321) 이래 언문이도(言文二途)의 구습을 이어받아, 한문, 가나문(和文), 화한혼효문(和漢混交文) 등이 있었다. 또 화한혼효문의 경우, 한문혼독체, 아속절충체(雅俗折衷體), 구문직역체(歐文直譯

體), 화한양조화체(和漢洋調和體) 등의 비구어적문체(非口語的文體)가 공존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일본인들이 문장속에서 쓰던 말들의 어휘들이나 어법들(문법)은 한문으로부터 취해진 것들이었고,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교토의 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구어로부터 취해진 것들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양학자들은 구어와 문어가 일치되어 있는 서구의 문장들을 번역해 가는 과정에서, 또 그것들의 일치로부터 오는 효과를 인식한 나머지 그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어와 문어와의 차이로부터 오는 불편을 자각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자각해 가는 과정에서 앞에 이미 지적했듯이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양학자, 마에시마 히소카(前島密)가 쇼군에게 한자를 전폐하고 가나문자를 전용하자는 의견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또 그가 한자 전폐와 가나문 전용의 필요성을 건의했던 것은 일본이 서구의 국가들처럼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민」(士民)들에게나 통하는 한자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간이(簡易)하게 배울 수 있는」 가나문자를 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문장에서 「구담」(口談)과 「필기」(筆記)가 같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언문일치」 연구자들은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시발로 파악하고 있다.²³⁾ 마에시마 히소카의 그러한 주창에 이어서 언문일치의 문장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를 비롯한 「메이로쿠샤」(明六社) 그룹인 양학출신의 진보적 계몽사상가들이었다. 우선 후쿠자와 유키치는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 1872) 등의 개화계몽서(開化啓蒙書)를 통해서 귀로 들어서 이해되기 쉬운 일상어를 사용해 「세속 통용의 속문」을 성립시켰다. 또 거의 같은 시대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는 『교역문답』(交易問答, 1869)과 『진정대의』(眞政大意, 1870) 등을 통해서 「올시다」(デゴザル) 담화체를 성립시켰고, 니시 아마네(西岡, 1829~1897)도 로마자 전용의 언문일치설을 주창하면서 「이옵니다」(デゴザル)체로 『백일신론』(百一新論, 1875)을 저술해 갔다. 그 후 시미즈 우사부로(清水卯三郎)도 「히라가나의 설」(平假名ノ説)을 「메이로쿠잡지 제7호(明六雜誌 第七號, 1874. 5)에 게재해 히라가나 전용의 구어문을 제창하고서, 화학입문서 『물질분해의 단계』(ものわりのはしご, みずほや刊, 1874, 봄)의 번역을 통해 가나언문일치를 시도했다. 그는 그 단행본에서 「이다」(である)를 사용하게 된다.

메이지 혁명이 일어난 10여 년경 부터는 문명개화의식이 싹트기 시작해 약 2,3년 동안

은 학력이 떨어지는 일반서민, 여자, 어린애들도 이해될 수 있는 담화체의 문장들, 예컨대, 「이옵니다。」(でございます), 「입니다。」(であります), 「했습니다。」(ました), 「입니다。」(です), 「이다。」(だ), 「을시다。」(でござる)체의 문장들로 쓰인 「소신문」(小新聞)들이 여기저기로부터 발행되어 나왔다.

그 후 메이지 12년경부터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저기로부터 민권신장을 위한 연설, 학술강연, 정담(政談) 등이 행해지게 되어, 그것들을 그대로 속기(速記)해서 신문 등에 게재해 가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메이지 12년경부터는 『조카이하란』(情海波瀾, 1879)을 비롯한 정치소설이 쓰여지게 되고, 또 자유, 개진당 등과 같은 정당이 성립되어 나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가는 기관지들이 설립되고 또 각 정당들이 정치소설을 자신들의 정당의 선전수단으로 동원해 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1884년경에 와서는 서구화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개량해야 한다는 기운이 일기 시작해 「가나의 사정」(かなのくわい, 1883. 7)이 결성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로마자회」(羅馬字會, 1885. 1) 등이 결성되어 국자(國字)개량운동을 일으켜 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의 사정」측의 중심멤버인 미야케 베이키치(三宅米吉)가 기관지 「가나의 사정」(かなのくわい, 1885~86)에 「속어를 싫어하지 마라」(ぞくごをいやしむな) 등을 발표해 속어, 즉 일상구어의 가치와 효능을 강조하면서 중류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구어가 일반국민의 문장어로서 최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에 의해 1885년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성어가 이루어졌고,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에 의해 단행본 『언문일치』(言文一致, 1886. 3)가 저술되었다. 언문일치운동에서의 그러한 획기적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후타바테이 시메이에 의한 최초의 언문일치 소설 『부운』(浮雲, 1887)이 간행되어 나왔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그러한 기세는 1889년(메이지 22년 2월) 「대일본제국 헌법발포」(大日本帝國憲法發布)를 계기로 서구화 개량사조가 후퇴하고 국수보존사조가 부상함에 따라 언문일치운동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 그 바람에 「아속절충체」(雅俗折衷體) 내지 「일한양삼체」(和漢洋三體)에 의한 비언문일치문이 신문, 잡지, 소설 등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일전쟁(1894~95)이 일어났고, 그것이 승리로 끝나자 일본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각 분야에서의 공업화가 활기차게 행해졌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문학분야에서도 서구로부터 전래된 사실주의문학이 뿌리를 내려 나갔다.

한편,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1867~1937)가 당시 독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어 개량운동이 행해져 나갔고, 또 그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분위기 속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1894년 6월에 귀국해, 정부를 향해 표준어에 의한 국어통일을 주창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국어순화운동이 한창이었다. 당시 독일에서 행해졌던 국어순화운동 등과 같은 국어운동이 우에다 가즈토시에 의해 소개되자, 일본의 문부성은 그로부터 얼마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해 나왔다. 「외국어가 국어 속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국어의 자주적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된다. 국어 속에서 외래어를 제거하는 것은 자주적 사상, 애국적 정신의 발로라고 하는 당연한 귀결을 가져올 것이다. 국어가 국민을 결속시키는 열쇠이고 국민정신의 교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그것이 국가국민의 통일에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국어의 요소에 국어의 순정을 오손시키는 비국가적인 것, 국민정신의 도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애국적 정신의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이 운동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²⁴⁾ 그는 또 그러한 주장을 통해 소설가들에게도 세련된 언문일치문장을 요구해 갔다.²⁵⁾ 그러한 요구를 계기로 해서 우선 「국어」(國語)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어 나왔고 언문일치운동이 새로운 차원에 재연되어 나왔다. 우선,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1868~1903)가 『두 아내』(二人女房, 1891. 8~92. 12)에서 1892년 1월분 부터 언문일치체를 채택하여 「이다」(である)조를 시도해 갔다. 그러다가 『다정다한』(多情多恨, 1896)에 와서 「이다」(である)조의 언문일치체가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우에다 가즈토시의 그러한 요구에 답하게 된다.

그 후의 언문일치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나갔다. 우선 우에다 가즈토시가 「국어 연구회」(國語研究會, 1894. 11)를 발족시켜서, 교육계에 표준어를 제정해서 언문일치의 문장을 이용할 것을 주장해 갔다. 그러자, 당시 내셔널리즘의 구현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던 문부쇼(文部省)에서는 1903년 발행의 「국정 보통소학독본」에 표준어 교육도 겸해 상당부분 구어체를 채용해 전국적 보급을 행해 갔다.²⁶⁾ 또 그는 1898년 5월에 신진언어학자들과 「언어학회」를 설립해 「언문일치」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구어체」(口語體)라고 하는 신명칭을 사용해 근대의 구어문체의식을 확립시켜 나갔다.

또 다른 한편으로의 언문일치운동은 이전 서구로부터 전래된 사실주의와 당시 전래된 자연주의의 물결을 타고 전개되어 나갔다. 우선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 1897 창간)를 본거지로 해서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1867~1902)와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 1874~1969)에 의한 사실(寫實)적 묘사에 입각한 사생문(寫生文)이 언문일치의 입장을 취

해 구어체를 수립, 보급해 갔고,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의 『파계』(破戒, 1906)를 비롯한 자연주의 소설들이 일상어를 사용해 인생의 진실을 추구해 감으로써 언문일치 문장을 확립시켜 나갔다. 그 결과 1908년경에 가서는 모든 소설들이 언문일치체의 문장으로 쓰여져 나오게 됐던 것이다.

3) 「である」(이다)조의 보급과 언문일치 문자의 확립

일본의 언문일치체 연구에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아마모토 마사히데(山本正秀)는 일본의 근대 구어문체 형성의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1900년에서부터 1909년까지를 확립기로 보고 있고, 1910년에서부터 1946년까지를 완성기로 보고 있다.²⁷⁾ 그의 그러한 입장은 「である」조의 보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성립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된다.

우선 그가 일본의 근대 구어문체의 완성기를 1946년까지로 본 것은 그 해 칙서(勅書)의 문장, 서간문의 일부가 마지막으로 「ナリ」(됨), 「タリ」(임), 「ベカラズ」(해야 함), 「候, そろう」(있사 음)조를 폐기하고, 「である」(이다), 「ます」(입니다)조의 구어문을 채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일본내의 모든 문장이 「である」조로 쓰여지게 됨으로써 일본의 근대 구어체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립기에 있어서의 「である」의 보급상태는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이지 시대로 들어와서 「である」 문장을 쓰기 시작한 자는 화학 입문의 역서 『물질분해의 단계』(ものわりのはしご, 1874)에서의 시미즈 우사부로(清水 卯三郎)로 고찰되고 있다. 그 후 그것은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에 의해 언문일치의 필요성을 논한 단행본 『언문일치』(1886. 3)에서 「であります」(입니다)와 함께 사용되어졌다. 1890년대로 들어와서 오자키 고요(尾崎紅葉)가 『두 아내』(二人女房, 1891. 8~92. 12)를 게재해 가는 도중인 1892년 1월부터 「である」를 시도해 갔다. 그 후 그는 『근방여자』(隣の女, 1893)에서부터 『다정다한』(1896)에 이르기까지 「である」조로 작품을 써 나갔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라서, 당시의 히로쓰 류로(廣津柳浪, 1861~1928), 사가노야 오무로(嵯峨の屋お室, 1863~1947), 가와카미 비잔(川上眉山, 1869~1908), 다이마 가타이(田山花袋, 1871~1928), 고스기 텐가이(小杉天外, 1864~1952), 이즈미 교카(泉鏡花, 1873~1939),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도 「である」로 써 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파급은 청일전쟁(1894~94)을 전후해, 「겐유샤 동인」(硯友社同人)의 공명을

언어, 「だ」체로 『부운』을 써 냈던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도 『작사랑』(片戀, 1896), 『부초』(浮草, 1897) 등을 「である」체로 번역해 냈다. 이렇게 해서 1890년대 말의 일본 근대소설은 「である」체를 중심으로 한 언문일치 문장의 소설들이 60%이상을 넘게 되었다.²⁸⁾ 신문분야에서의 「である」체는 『요로즈초호』(萬朝報, 1892년 창간)의 기자였던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에 의해 일반화되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부터 그는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자로서 자유민권사상의 계몽에 커다란 역할을 행해 왔던 잡지 「마루마루친분」(團々珍聞)의 「차설」(茶說)란(1897년 7월 30일자)에 「である」조의 언문일치체로 「아키야마 참사관을 영접한다」(秋山參事官を迎ふ)를 발표했다. 그는 그것을 계기로 1901년 4월까지 「である」 또는 「だ」조로 무려 37편의 논설을 썼고, 「요로즈초호」 게재의 사설도 1899년 3월까지 10여 편 이상 「である」 또는 「だ」조의 언문일치체로 썼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²⁹⁾ 그 후, 그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도 언문일치에 열중한 나머지 「である」조를 기조로 한 언문일치체로 단행본 『언문일치 보통문』(言文一致 普通文, 1901. 7) 등을 저술해 갔다. 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도 「영국의 문인과 신문잡지」(1899년 4월)에서부터 평론을 「である」조로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문일치운동은 확립기(1900~1909)로 접어든다.

우선 국어개량운동을 주도해 가는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가 1898년 5월, 그의 신진 언어학자를 회원으로 해서 「언어학회」를 설립해 1900년 2월에 기관지 「언어학잡지」(言語學雜誌, 1900. 2~1902. 9)를 발행한다. 그 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태반이 「である」조의 언문일치체로 쓰여져 있다. 본 「언어학잡지」에는 언문일치를 정확히 행해 가라는 성원과 지도의 문장들이 많이 게재됨으로써 근대 구어문체 형성사에 커다란 역할을 행해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00년 3월에 유력한 교육자, 학식자들에 의해 언문일치의 연구와 실행 및 보급을 목적으로 「언문일치회」가 창설되어 매월 1회 대회를 개최해 갔다. 1901년 1월 제1회 언문일치 공개연설회 개최 때는 천 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그러한 대회, 강연회의 성과는 언문일치 조사실행을 위해 국어조사회를 설립토록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제3회 전국연합 교육회에는 「소학교 교과문의 문장은 언문일치의 방침에 의할 것」이라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그 결과 1903, 4년도에 문부쇼(文部省)가 편수발행한 국제보통소학독본이 경체(敬體)로는 「です」조를, 평상체(平常體)로는 「である」조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학계에서는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가 신문 「일본」(日本, 1900. 1~3)에 「서사문」(敘事文)을 발표해 「사생문」(寫生文)을 제창해 갔다. 그 후 하이쿠(俳句)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의 공동편집인 시키와 다카하마 교시(高浜虚子)는 「호토토기스」를 통해 언문일치주의의 사생문을 창도해 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호토토기스」에 「である」조의 언문일치체로 『나는 고양이다』를 연재해 가게 된다. 그 결과 그 작품을 통한 소세키의 출현은 사생문에서 소설로의 길을 개척해 교시(虚子), 데라타 도라히코(寺田寅彦) 등을 비롯한 많은 소설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해서 「호토토기스」의 사생주의로부터 나온 작가들은 노일전쟁(1904~1905) 이후 『과계』(破戒, 1906)의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을 비롯한 자연주의 작가들의 언문일치 문체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자연주의 작가들의 구어문체의 한 특징은 그들 모두가 「である」조의 언문일치체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이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시골교사』(1909) 등에 의해 「である」조를 기조로 한 근대구어문체가 확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근대 구어문체가 완성기로 접어든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 때문이었다. 우선 하나는 자연주의 문학자들의 문체가 100% 구어문체라고는 하나, 그것들이 일본문학의 옛 전통을 이어 받은 한문투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구어문체였다는 점이다. 그러한 구어문체는 1910년에 창간된 「시라카바」(白樺)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소위 시라카바파에 의해 일본문학의 전통적 한문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구어문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언문일치문체의 완성기가 도래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도쿄 니치니치 신문」(東京日日新聞), 「도쿄 아사히 신문」(東京朝日新聞) 등의 대신문에서는 1910년 이전까지는 「である」조의 어구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である」조로 전 지면을 메우게 된 것은 1920년대 초로 접어들어서였던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언문일치운동에 있어서의 「である」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스기모토 쓰토무(杉本つとむ)는 「である」는 중세에 성립되어 16세기 교토를 중심으로 퍼져 있었는데 국학자와 한학자 등이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고전을 번역해 내는 과정에서 사용했고, 또 19세기에 와서 나가사키(長崎)의 난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오다가 요코하마(横浜)로 옮겨지게 됐던 것으로 고찰해 내고 있다.³⁰⁾ 그는 「<である>는 문장어로서 실로 <근대어의 표장>(近代語の標章)으로서 표준적 일본어의 문장체로서 정좌(正座)를 차지해 현대에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である」에

대한 쓰토무의 고찰과 그것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료로 해서 논자의 차원에서 언문일치운동과 「である」를 관련시켜 그것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논해질 수 있다. 「である」는 16세기경에 교토인들의 구어였다. 그런데 18~19세기에 중국의 고전, 서구의 화란서적 등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문장어로 정착되어 나왔다. 그런데 메이지의 언문일치주의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문장으로 가져다 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메이지의 언문일치주의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문장어로 가져다 썼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 물음은 그들이 언문일치를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할 수 있다.

메이지의 언문일치주의자들에 있어서의 언문일치운동의 목표가 언문일치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그러했듯이 기존의 문어체를 담화체로 전환시키는 것에 두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구어를 문장어로 전환시키는 것에 두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목표로 설정했던 근대 구어체 문장이란 전근대 문어체가 근대 구어 문장체로 전환해 나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담화체의 형식으로부터 탈피해 나오으로써 모든 인격체들로부터 해방되어 필자로서 취할 수 있는 고유의 위치에서 쓰여진 문장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언문일치체 문장으로서의 「である」조 문장은 근대 구어체로서 완성된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이란 필자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경우 독자들은 왕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서민들일 수도 있다. 노인들일 수도 있고, 어린이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자기의 모든 독자들에게 대하여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그러한 입장을 표현해 낸 말이 바로 「である」조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문일치체의 확립은 근대적 자아의 확립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중국과 서구의 언문일치운동

1) 중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성립과 전개양상

중국에서의 한·일의 언문일치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백화문(白話文)운동이다. 현재 중국의 백화문운동의 연구자들은 호적(胡適, 1891~1962)의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 「신청년」, 1917. 1)를 백화문운동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문학개량추의」에서 호적은 이런 내용의 말을 하면서 언문일치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현재 중국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文語)에 의해 쓰여지는 작품이란 「죽은 문학」(死文學)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백화」(白話)로 쓰이는 작품만이 「산문학」(活文學)이 되는 것이다 라고³¹⁾ 그리고 그는 서구의 경우 라틴어 문학으로부터 구어(口語)에 기초한 여러 민족어 문학이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백화문학이야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문학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던 그는 이어서 그 다음 「신청년」 2월호에 백화시(白話詩) 8편을 발표했다.

한편, 「신청년」의 편집인 진독수(陳獨秀, 1879~1942)도 호적의 백화시와 함께 「문학혁명」(1917. 2)을 발표하여 백화문 사용을 통한 문학혁명을 제창해 갔다. 호적은 그 해 즉 시 귀국해 북경대교수로 취임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청년」의 편집에 참가하게 된다. 「신청년」은 그 다음해(1918) 1월부터 전적으로 백화문을 채택한다. 이렇게 해서 백화문운동은 진독수가 제시한 「문학혁명」을 이론으로 해서 문학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 백화문운동에서의 「백화」(白話)란 문언(文言)이나 문어(文語)에 대한 개념이다. 문언이나 문어란 문장 속에서 쓰이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백화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다. 백화문(白話文)이란 당시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입으로 쓰는 말을 사용해서 쓴 문장을 말한다. 그런데, 당시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그들은 고인들이 사용했던 문장 속의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 갔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백화문운동이란 자신들이 글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가는데 있어서 옛 고인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가지말고 현재 자신들이 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것들을 표현해 가지는 운동이었던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중국인들에 있어서의 문언 내지 문어란 어떤 것이었던가? 중국에서도 문자사용을 통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가기 시작했었을 당시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입으로 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한자로 표현해 갔었다. 당대의 민간가요를 수집해서 한자로 적어낸 『시경』(詩經)과 『초사』(楚辭), 공자와 그의 제자의 대화를 기록한 『논어』(論語) 등은 다 그러한 것들이고, 『주역』(周易), 『상서』(尚書), 『예』(禮), 『춘추』(春秋) 등의 성립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한대로 들어와서 고전(古典)이 중시되고, 또 칙서(勅書), 율령(律令) 등과 같은 문(文)이 통일된 전국의 통치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특히 전한의 무제(武帝)는 BC

136년 5경박사(五經博士)를 두어 학관(學官)을 세워 유가(儒家)의 5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에 따라 5경과 같은 고전에 쓰여진 말들이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조(六朝)로 들어와서 사육병려문이 유행함에 따라 대귀(對句)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장이 어구(語句)의 조탁(彫琢)과 수사(修辭)적 기교로 화려하려 결국은 구어(口語)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고, 당대(唐代)로 들어와서는 그러한 병려문에 반대해 고문(古文)운동이 시작되어 결국은 문어와 백화와의 거리는 한층 더 넓혀지게 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자 소설까지도 문어로 쓰여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백화와 문어가 6조와 당대로 들어와서 분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문어란 풍부한 어휘, 간결한 문법, 세련된 수사법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있는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사고를 서술해 가는데 있어서 편리한 수단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의 모든 문장이 다 문어로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유학자들이 문어로 문장을 써 가자, 일반민중을 상대로 불교의 교리를 전파시키려는 승려들의 경우는 구어(口語)로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설교를 행해 갔다. 그들이 구어로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현재 변문(變文)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당대이후부터 상류층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어,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가 각각의 표기수단으로 확립되어 문어문과 백화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이 형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송대로 들어와서 불자(佛者)들의 변문에 이어 유자(儒者)들의 어록(語錄)도 백화로 쓰여져 강설(講說)의大本인 화본(話本)이 쓰여져 나와 백화로 쓰여진 소설들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문학장르의 측면에서 말할 것 같으면 송대로 들어와서 문어로 쓰여지는 시(詩) 장르로부터 백화구어(口語)적 표현이 많은 사(詞)가 운문형태를 취해 파생되어 나왔고, 원대(元代)로 들어와서는 서민층으로부터 대화부인이 당시의 구어로 쓰여진 곡(曲, 元曲)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형식이 성립되어 나왔다. 명·청대로 들어와서는 7, 80%가 백화로 쓰여진, 『수호전』(水滸傳), 『서유기』(西遊記),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紅樓夢) 등이 출판되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호적이 『문학개량추의』에서 중국문학의 전통성이 문어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화문에 있다고 하는 말도 그 나름대로 정당성을 지닌 말이다. 호적의 백화문 사용 주창 이전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백화와 문어와의

차이를 자각하고 그 거리를 좁혀보려는 노력은 첫째로 태평천국의 난 때 홍수전(洪秀全)의 지시에 의해 홍인간(洪仁玕, 1822~1864)에 의해 발표(發布)되었던 뜬구름 잡는 문장과 교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계부문교언유」(戒浮文巧言諭, 1861)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홍인간은 그 발표문에서 문체의 개량방침을 제시하고 「고전 속의 말만을 쓰지 말고,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는 명확 투명한 말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³²⁾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20여 년 후 청일전쟁 이후 일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던, 변법유신파(變法維新派)에 의해 행해졌다. 예컨대,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은 그의 문장 「잡감」(雜感)에서 「내 손은 내 입을 베긴다」는 입장을 취해 그의 시(詩) 속에 속어를 끌어들이었다.³³⁾

구정량(裘廷梁, 1857~1943)은 「백화는 유신(維新)의 근본」이라 생각한 나머지, 「백화를 숭배하고 문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구호를 제기했다. 또 진영곤(陳榮袞)은 신문은 백화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왕조(王照)는 자신이 제정한 관어(官語)의 자모(字母)를 밝히고 북경인의 말을 베껴야지 문언을 베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그들은 통속적으로 평이한 문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당시 문단을 장악하고 있던 동성파(桐城派)의 고문(古文)에 도전해 「신문체」를 제정했다. 설혹 그것이 문언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토속어 외국어 문법 등이 섞인 백화문 쪽으로 진일보된 문장이었다.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던 결과 당시 백화문 신문은 10여 종이, 백화문 교과서는 50여종이, 백화소설은 1500여종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호적의 경우처럼 문언문을 백화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중대한 변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왔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호적의 그러한 주장이 백화문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를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첫째, 과거제도가 폐지되었고, 둘째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봉건 황제를 제거했고, 셋째 1916 자칭 황제라 칭했던 원세개(袁世凱)를 제거한 후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어운동을 통해서였다. 중국에서의 국어운동은 민국(民國)설립 10여 년 전인 1902년, 동성파(桐城派)의 한 사람인 오여윤(吳汝綸)이 일본의 학계를 시찰하고 귀국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일본이 도쿄어를 국어의 표준어로 삼아서 국어운동을 일으켜 가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돌아와서 북경어를 중국의 표준국어로 삼아 국어통일을

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창해 갔다. 그렇게 출발된 중국의 국어운동은民国설립 이후 주로 북경어를 표준으로 한 「한음통일」(漢音統一)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 결과 북경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國音)통일운동은 1916년 발족된 「중화민국 국어연구회」의 회원들은 4년 간에 걸쳐 1만2천 여 명까지 불러나갔던 것이다.

중국에서의 이 「국어운동」은 1900년대 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1949) 시점까지 행해진 운동이다. 이 국어운동은 「언문일치」와 「국어통일」이라는 양대 구호 하에 행해져나갔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00년대 초에서부터 호적의 백화운동 전까지는 한 음운차원에서의 통일에만 역점을 두었던 탓으로 그 사이에는 언문일치에는 그렇다할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호적의 언문일치주창이 일시에 백화운동으로 성립되어 나와 문학혁명의 중핵이 되어 5.4운동으로 전환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국어음 통일차원에서 행해져 왔던 국어운동이 그 정신과 조직적 차원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렇다면 호적의 「문학개량주의」에서 시작해 진독수의 문학혁명을 거쳐 발전해 나왔던 백화문운동은 그 후 어떻게 전개해 나갔던 것인가?

「신청년」이 전면적으로 백화문을 사용하게 되자, 그 해 5월 노신(魯迅, 1889~1927)이 「신청년」에 백화문으로 『광인일기』(狂人日記)를 발표함으로써 문예방면에서 백화문운동의 초석을 세워놓았다. 그것을 계기로 그 해 말 이대쇠(李大鈞, 1889~1927), 진독수 등이 「매주평론」(每週評論)을, 그 다음 1919년 1월에는 북경대생들이 「신조사」(新潮社)를 결성해서 월간 「신조」(新潮)를 창간해 모두들 백화문을 채택해 갔다. 그리고 노신은 「잡감록 57호」(雜感錄57号)를 통해 그 백화문이 현대중국어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주창해 갔다. 그러나 그러한 백화문운동은 쉽게 진행됐던 것은 아니었다. 임서(林紓, 1852~1924) 등과 같은 고문파(古文派)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고, 당시 북경대 총장 채원배(蔡元培, 1868~1940) 등과 같은 학계 인사들도 반박하고 나왔다. 그렇기는 했지만 1919년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5.4운동의 폭발은 백화문운동을 맹진케 하여, 일년 내에 400여종에 달하는 백화문신문들이 창간되었고 그 다음 1920년에는 북양(北洋)정부의 교육부 명령으로 초등학교 교과서가 백화문으로 쓰여졌고, 창조사(創造社) 등과 같은 백화문 지지의 문학단체들이 연이어 생기게 되었다. 반제반봉건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공산당과 국민당도 문언문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도주보」(向導週報)와 상해의 「민국일보」(民國日報)도 백화문 사용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921년 이후에는 문학계에 있어서는 노신의 중편소설 『이큐정전』(阿Q正傳, 1921)의 발표, 곽말약(郭沫若) 시집 『여신』(女神, 1921)의 출판 등을 계기로 백화문에 의한 작품 창작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방면에서 있어서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정부의 공문이나 신문 등이 문언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방면에서 백화문을 채택하기까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를 기다려야 했었던 것이다.³⁴⁾

2) 서구의 언문일치운동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르네상스 시기(13~16세기)를 서구에서의 언문일치운동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1265~1321)가 라틴어로 『속어론』(俗語論)을 집필한 시기는 1303~5년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가 그것을 집필한 이유는 문학을 라틴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의도 하에서였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어로 『신생』(新生, 1293)을 집필해 입증해 보였으며, 『속어론』 집필 직후 또 하나의 입증을 위한 시도로 『향연』(饗宴)을 집필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탈리아어로 『신곡』(1307~1321) 집필에 착수한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의 문필활동은 라틴어로 행해져왔었다. 그러나 단테의 그러한 시도를 계기로 페트라르카(F. Petrarca, 1304~74)도 이탈리아의 토스카니지방의 구어(口語)로 속어 서정시집 『칸소니예레』(Cansoniere, 1350)를 출판한다. 북카치오(G. Boccaccio, 1313~75)도 단테를 따라 이탈리아어로 『데카메론』(1349)을 출판한다. 이들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탈리아에서는 라틴어에 의한 작품집필이 이탈리아어에 의한 집필로 서서히 전환해 나왔다.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그 당시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문어는 라틴어였고 구어(口語)는 이탈리아 지방의 말이였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원에서의 문어와 구어와의 분리는 케사르, 키케로, 베르기리우스, 호라티우스 등이 활약했던 고전기(古典期, BC 1세기~BC 2세기) 이후부터로 고찰된다. 고전기에도 문어라틴어와 속어라틴어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 차이는 그리스 식민지에 살았던 라틴민족의 일부가 라틴어로 그리스의 비극들과 『오딧세이』 등을 번역해 내는 과정에서 그리스어의 문법과 단어들을 기초로 해서 문어라틴어가 성립되어 나오으로써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문어라틴어나 속어라틴어와의 차이는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던 것은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서의 로마제국영내로의 게르만민족의 대이동 이후였다. 그 후 그 차이는 서로마제국의 멸망(476), 구로마제국영토 내에서의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에 의한 프랑크왕국의 건설(5세기말), 프랑크왕족의 분할(511), 분할된 영토들을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 프랑스왕국, 독일왕국 등의 성립과 그것을 통해서서의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과 같은 민족어들이 성립되어 나옴으로써 확립되었던 것이다.³⁵⁾ 다시 말해서 서구인들은 라틴민족이 예컨대 이탈리아민족으로 구체화되어 나와서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이탈리아민족이 단테의 경우처럼 자기민족의 말로 작품을 쓰게 된 시점에까지 라틴민족의 말, 특히 문어라틴어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기록해 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이 그때까지 습관적으로 기록어로 사용해 왔던 라틴어를 버리고 자신들의 구어로 작품을 창작했던 것은 뿌리를 같이 하는 라틴민족의 후손들이나 게르만민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 등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늦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1,12세기 전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롤랑의 노래』(1050년경), 『여우이야기』(1074~77), 『장미이야기』(前編, 1230년경) 등이 그 예들이 될 것 같다. 독일은 이미 칼대제의 치세(768~814)부터 볼 수 있다. 당시 칼대제는 기재어로서 라틴어를 배척하고 독일어사용을 장려해 갔었다. 그 결과 『빌디 블란트의 노래』가 고대고지(古代高地) 독일어로 쓰여져 나왔다. 그 후 10세기 후반의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와서는 다시 라틴어가 중요시되어 독일어로의 창작이 쇠퇴되었었는데, 다시 12세기말경부터 독일어에 의한 창작이 서서히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사조를 타고 루터에 의해 라틴어 성서가 독일어로 1522년에 번역되어 나옴으로써 독일어의 통일이 촉진되어 나갔다.

영국의 경우는 상황이 이들과는 좀 달랐다. 브리타니아 섬이 BC 54년에 로마의 명장 케사르에 의해 점령되자, 그 후의 영국은 5세기 초까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초 게르만족의 일파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그 섬은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 그리스도교에 개종되어 라틴문화에 유입되어 기록어로서 라틴어를 사용해 가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대 영어로 영웅서사시 『베울프』(701년경)가 쓰여졌고, 886년에 알프레드 대왕은 라틴어 문헌을 영어로 번역해 내기도 했다. 또 1000여 년경에는 라틴어 문법이 영어로 쓰여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1066년에 노르만민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들어와 잉글랜드가 그들 손에 떨어지자 영국의 지배계층은 그로부터 3세기 동안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써 갔고, 영어는 하층계급에 의해 쓰여져 갔었다. 그러한 상황에

서 잉글랜드의 의회가 1362년 프랑스어를 말하는 습관을 깨고 영어로 개회사를 행하게 됨으로써 영어가 본래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한편 그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 지방에 까지 밀려든 르네상스 사조를 타고, 초서(G. Chaucer, 1340~1400)에 의해 중세영어로 『칸타베리 이야기』(1393~1400) 등이 쓰여져 나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구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로마시대에서부터 르네상스 이전까지 문어로 사용해오던 라틴어를 버리고 당시 자신들이 쓰고 있는 구어를 문장으로 써가기 시작함으로써 발단되어 나왔다.

그러나 서구인들의 그러한 전환은 18세기말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어 나왔던 것으로 고찰된다. 서구에서의 그러한 전환은 신성로마제국의 후예들로 자칭해 갔던 독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예컨대 1740년에 행해진 총 출판물은 753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라틴어로 쓰여진 것인 209건이었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3권 중에서 1권이 라틴어로 쓰여졌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800년에 와서는 25권 중 1권 정도가 라틴어로 쓰여져 나왔다.³⁶⁾ 서구인들이 르네상스 시기에 자신들의 구어를 문장으로 쓰기로 했던 그러한 조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이유가 파악될 수 있다.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래 그리스도교문화를 받아들여 갔던 서구인들은 신과 말과 이성을 같은 차원에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성서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담은 라틴어를 신성시해 갔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성스럽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을 라틴어로 기록해 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서구인들은 13세기 후반까지 지속됐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타문화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자신들이 믿어오던 그리스도교를 상대적으로 인식해 가기에 이른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라틴어에 대한 인식도 상대화되어 자신들의 시대, 자신들의 지역, 자신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차원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기 이전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 차원에서의 언어 사용의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구인들은 3세기라고 하는 르네상스기를 통해서 로마인들의 구어였던 라틴어를 버리고 자신들의 구어를 문장어로서 받아들여 갔던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서구에서 출발했던 언문일치운동의 르네상스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던 것인가?

영어의 경우, 각스툼(William Caxton, 1422~1491)이 영국 런던에서 인쇄소를 차려놓고 책을 대량으로 출판한 1475년으로부터 25년경 전부터 전 영국인들은 일상용어로 영어

를 쓰게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를 비롯하여 의회의 모든 기록들은 영어로 기록해 가기 시작했었다.³⁷⁾ 각스툼이 인쇄소를 차려서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되었던 언어는 영국의 동중부 방언(East Middle Dialect)이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출판된 서적들이 사방으로 팔려나감에 따라 그 방언이 지역적 방언과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 동중부 방언이 영어의 표준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영어 속에서 문어체(literary style)가 새로 등장해 나왔다. 영어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1500년대 이후의 초기 현대영어의 시대로 전환해 나온다. 그러나 발음이나 철자법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굳어진 것은 후기 현대 영어의 시대가 시작된 17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영어가 현대와 같은 상태로 굳어지게 된 것은 초기 현대 영어 시대 이후, 윌리엄 틴달(William Tyndal)의 영역성서 출판(1526), 영국 최초의 음성학자 존 하트(John Hart)의 『정자법』 An Orthographie 저술(1569), 윌리엄 불로커(William Bullokar)의 최초의 영문법서 『간결 영문법』 Brief Grammar for English 저술, 로버트 카우드리(Robert Cawdrey)의 최초의 영어사전 『알파벳 테이블』 A Table Alphabeti-call 출판 등을 통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175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전다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닥터 사무엘 존슨(Dr. samuel Johnson, 1709~84)의 『영어사전』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의 출간(1755)을 계기로 해서 영어가 현재의 상태로 완전히 굳어졌던 것이었다.

그 다음 유럽은 1700년대 말의 프랑스대혁명과 1800년대 초의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일반시민층을 기초로 해서 근대 주권국가가 형성되어 나왔다. 르네상스 이후의 예컨대 단테와 같은 인문주의자들은 당시의 성직자들과는 달리 고대라틴민족들이 쓰던 라틴어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할 것을 거부하고 당시 라틴민족과는 다른 이탈리아 민족이 사용하는 이탈리아 말로 자신들의 그것들을 기록해 가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18세기 중반 이후에 산업혁명의 분위기를 타고 형성된 근대 산업사회의 유럽인들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전후해 자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 나라의 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글로 기록해 가려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기의 인간들은 신과 내통하는 성직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인문주의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기술해 가려 했었고, 18세기의 유럽인들은 봉건사회를 구성하는 성직자, 기사, 귀족 등과 같은 한 멤버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들로 자신의

문제의식들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인들에게는 1800년대 초의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나옴으로써 자신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있는 언어의 도구성이 강조되어 나왔다. 플로리언 쿨르마스(Florian Coulmas)가 그의 저서 『언어와 국가』 Sprache und Staat 에서 행하는 다음의 언급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언어와 내셔널리즘』과 관련시켜, 『프랑스 혁명이래, 언어와 한 국민과의 관련은 중요한 정치이념화되었다. E. 렘베르그(Eugen Lemberg)는 두 권에 걸친 내셔널리즘에 관한 책 속에서(1964), 프랑스 혁명 이후 성립된 근대 유럽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언어상의 사회공동체로서 자기의식에 눈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정치이념을 독일에 도입한 역할을 한 자가 헤르더이고, 그의 독일귀족의 프랑스 침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유명한 『인도주의 축진을 위한 서간』 속의 <언어와 국민>의 문제에는 반복해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고, 끊임없이 자국어의 경멸에 대한 논박이 제시된다.³⁸⁾ 그것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표준성과 통일성이 강조되고 또 자신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자신들의 언어가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정신을 계발시켜 나가고 국민들의 문화를 전파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그것의 연구와 교육이 활발히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³⁹⁾ 예컨대 1871년에 출발한 독일제국은 그 이듬해 『제1조 ... 모든 공사의 교육시설에 관한 감독은 국가에 위임된다』는 『학교감독법』을 공포하고, 1876년에는 『일반적 제규정』을 공포해, 『민중학교』와 『중간학교』 등을 통해 국민교육을 실시해 갔다. 그 경우, 예컨대 『민중학교』에서는 주당 『종교4, 독일어11, 산수·기하 4』, 『중간학교』에서는 4,5,6등급의 경우 주당 『종교3, 독일어12, 산수5』 등의 비율로 『독일어』교육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다.⁴⁰⁾

이렇게 해서 유럽인들에게는 19세기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시대를 통해 자신들이 쓰는 구어(口語)가 국어(national language)로서의 의식이 확립되어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어(口語)에 기초한 새로운 문장체가 확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한 확립은 서구에서의 리얼리즘의 완성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고찰되고 있다.

4. 한·중·일과 동서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특징

1) 한·중·일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특징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한국보다 먼저 서구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던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발단되었다. 접촉이 행해졌던 당시 한국에는 한문, 국한혼용문, 국문 등이 존재해 있었다. 당시 한문은 사대부계층과 관리들에 의해 공문으로 쓰여졌었고, 국한혼용문은 주로 중인계급 들에 의해 쓰여졌었다. 국문은 주로 사대부층의 아녀자(兒女子) 층에 의해 쓰여졌었다. 사대부층이나 관리들이 주로 쓰고 읽는 글들은 한시, 산문, 공문서 등으로서 한문으로 쓰여진 것들이고, 아녀자들이 쓰는 것들은 소설, 수필, 일기 등으로서 한글로 쓰여진 것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근대 일본과의 접촉을 계기로 우선 일본의 경우를 본받아 한문 대신에 국한혼용문을 공문으로 쓰시는 입장이 일본인과 관계를 가져왔던 인간들과 일본인들에 의해 제기되어 국한혼용문 사용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나가서 그곳의 문물들을 흡수해 돌아온 미국유학생들의 귀국을 계기로 국문운동이 전개되어 나왔다. 또 그 국문운동은 국어의 표기법, 음운, 문법 등의 통일을 역점에 둔 국어운동으로 전환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나온 국한혼용문이나 국문들은 한문체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한국 고래의 국한혼용문과 언문(諺文) 등의 흐름을 타고 형성되어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서민들이 쓰던 구어(口語)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인간들은 그러한 문장들을 당시 일반서민들이 쓰던 구어를 통해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속어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근대 일본과의 접촉을 계기로 발단되어 왔고, 한문폐지와 국한혼용문운동 국문운동과 국어운동, 속문운동이라고 하는 3단계를 통해 행해져 나왔고 또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국력을 결집시키고 평민 중심의 사회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문일치운동을 발단시켰던 일본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서양서적들을 번역해 가다가 언문일치화 된 서구어 문장들의 장점을 발견한 난학자(蘭學者)들에서부터 18세기 말부터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그것은 메이지 혁명 직전에 양학자에 의한 「한자 폐지」의 건백으로 발단되어 나와서 근대 서구의 계몽사상과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 속문운동으로 전개되어 나왔다. 계몽사상

가들의 그러한 속문운동은 정치, 사회계에서의 1880년대 전반기의 민권운동, 80년대 후반기의 서구화 운동의 물결을 타고 전개되어 나갔고 1880년대 말에 와서는 문학계에서의 사실주의 운동, 1890년대 말에 와서는 정치사회계에서의 사회주의 운동과 교육계에서의 국어운동, 1900년 초년대 후반에 와서는 문학계에서의 사생문운동과 자연주의 운동, 1910년대에 와서는 정치사회계에서의 자유, 개성주의에 입각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물결 등을 타고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메이지 혁명 직전 서양서 역관 마에시카 히소카가 한자 폐지를 건백했을 당시, 일본에는 대별해서 한문 화한훈효문, 가나문 등의 3종이 존재해 있었다. 당시 한문은 주로 한학자와 승려, 관리 등이 사용했었다. 관청의 공용문, 법령문, 칙서등도 한문으로 쓰여졌었다. 가나문은 와카(和歌), 일기 등에서 사용되었다. 화한훈효문은 에도시대 이전에는 모노가타리(物語), 특히 설화, 군기물등에 사용되어 왔는데, 주자학을 받아들인 에도시대에 와서 성립된 하이카이(俳諧), 오토기조시(お伽草子)이후의 문학장르 등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다가 메이지 혁명을 계기로 관청의 공문이 화한훈효문으로 전환해 나오에 따라 근대 일본의 대표적 문장은 화한훈효문으로 정착되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화한 훈효문을 구성하는 단어들과 문법이 기본적으로 한대와 6조시대의 한문, 헤이안 시대의 구어, 에도시대 일본에 전래된 중국 백화문 등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의 핵심은 화한훈효문의 단어와 문법을 당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들과 구어 문법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문어를 버리고 당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장어를 구축하려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선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은 서구인들의 발전된 문명이 그들의 언문일치 문장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서 일본이 서구의 문명국들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문장에서도 일본인들도 그들처럼 언과 문이 일치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의 언문일치운동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언어통일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국어운동의 일환으로서도 행해져 갔던 것이다.

중국의 언문일치운동은 일단 세 단계를 거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청일전쟁(1894~5)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승리가 자기들보다 빨리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일본의 서구 문물의 수입방식에 관심을 가져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서 변법유신을 일으켜 언문일치를

주창해왔다. 당시 중국에서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장은 문어문이었다. 당시 중국에는 문어문 외에도 백화문(白話文)이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소설, 희곡 등의 문장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변법유신의 주체자들의 그러한 주창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5.4문화운동 직전 호적과 진덕수 등을 통해 미국, 프랑스 등의 서구 문물과의 접촉을 계기로 또 한번 언문일치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전과는 달리 당시 5.4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문학운동의 물결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다음 그것은 20년대 초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 삼국에서 언문일치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근대서구화를 가장 빨리 단행한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보다 근대화가 늦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의 영향 하에서 발단되었다. 그렇게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의 영향 하에서 발단된 한국과 중국의 언문일치 운동은 서구의 언문일치 문장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발전되어 나갔다. 한국에서의 언문일치는 탈한문운동, 국문운동, 속문운동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속문운동을, 중국의 백화문운동을 통해 행해져 나왔다.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체는 결국은 국한혼용문으로 확립되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30여 년 간 군사정권 하에서의 언문일치체 문장은 국한혼용문에서 국문체문장으로 전환되어 나와 90년 이후부터는 국문체 문장으로 정착되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공문으로 받아들여진 화한혼효문이 일관되게 언문일치체 문장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언문일치 운동에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서구와의 동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봉건적 요소의 청산이라고 하는 사상이 짙게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발단은 일본에서의 188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서구화운동의 물결을 타고 행해졌고, 중국의 경우는 1890년대 후반에 일어나 국어운동의 영향 하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언문일치체문장의 확립은 일본의 언문일치체 문장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통해서 완성된 1920년대로 들어와서였다.

중국문화권에서 산출된 한자가 문어적 요소를 짙게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한국 문화 속에서 나온 한글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나는 구어(口語)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래 한국의 언문일치체 문장은 문어적 요소가 짙은 한자를 배제해 가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일본의 언문일치체 문장은 일관되게 한자와

가나와의 혼효입장을 유지해 가려는 입장을 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연유되어 나오는 것인가?

동아삼국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근대 서구의 언문일치 된 문장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발단되어 나왔다. 그것은 메이지 혁명(1868) 직전에 일본에서 발단되어 나와 그로부터 50년 후인 1920년대에 들어와서 완성되어 나왔다. 언문일치 운동은 소수에 해당되는 귀족들이나 상류층 중심의 사회를 다수에 해당되는 일반 평민들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켜 타민족과에 대항해 갈 수 있는 국력을 집결 시켜 가기 위한 목적 하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 갔던 에너지원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의식들이었다고 고찰된다.

또 그 운동은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각 국민들의 표준어를 정하고 발음과 표기상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국어운동과 맞물려 전개되어 나갔다. 이연숙 박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과 관련시켜 국어(國語)운동을 「분명히 「국어(國語)」를 일본의 문화적 엘리트의 독적물로부터 해방시켜 국민전체의 언어표출을 커버할 수 있을 언어적 통일로서 파악하는 한, 문장어와 구어의 타협은 불가결한 것으로서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본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언문일치운동도 그러한 목적 하에서 행해졌던 것이다.⁴¹⁾

2) 동·서양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특징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동아시아에서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서구의 언문일치화 된 문장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발단되어 나와 50여 년 간의 기간을 통해 지속되어나간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결국은 중국의 한나라 시대를 전후해 형성된 한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 자기들의 문어문을 버리고 당시 자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쓰자는 운동이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삼국의 언문일치 운동을 발단시켰던 서구인들의 문장들은 르네상스 이후 6백여 년 간의 언문일치 운동을 통해 언문일치화 된 것들이었다. 그들의 언문일치 운동은 제 일단계에서 인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라틴어를 버리고 자국어틀을 사용하자는 자국어 사용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들이 그러한 운동을 통해 자국어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가게 되자.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 나라의 귀족이나 성직자가 쓰는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쓰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통일시켜 보려는 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이나 자기 자신들이 처해있는 사회계급의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민족의 언어들의 발음, 문법, 표기 등을 통일시켜 보려는 노력들이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절대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군주국가 하에서의 일로서 대개 17~19세기의 3세기 간에 행해져 나왔었다. 그것들은 그 나라의 문법서 편찬, 서적편찬, 서적출판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왔었던 것이다.

다음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민혁명을 통해 군주국가가 국민국가로 전환해 나온 후 국가의 국민성이 계발되고 그 국민성의 통일이 추구되고 그것의 우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언문일치 운동이 행해졌었다.⁴²⁾ 이러한 상황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19세기 초부터 말까지의 1세기 간에 걸쳐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언어사랑, 언어보호, 언어순화, 언어연구 등과 같은 소위 「국어운동」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프러시아의 대두에 의해 보불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서 점점 독일제국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민족적 결속력이란 「종교도 정치도 모두 힘이 될 수 없었고 그 국어에 의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⁴³⁾ 독일제국 성립 후에는 헤르만·리게르 박사에 의해 1885년 「일반독일어협회」(후에 「독일국어협회」로 개칭)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해는 월간 기관잡지가 창간되어 나왔다. 그 창간사에는 독일국어협회의 설립취지를 「국어순화운동」으로 삼고, 그 운동의 핵심을 「1. 국어로부터 불필요한 외래문자를 제거하고, 그 순화를 촉진한다. 2. 모국어의 진수와 특성에 대해 안전과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3. 그렇게 해서 일반국민의식을 강화한다」로 삼았던 것이다.⁴⁴⁾ 당시의 이러한 「국어애호, 국어존중, 국어지상」의 사상은 차차 각 방면으로부터 환영을 받아 국민에게 고하는 황제의 칙어도 완전순수 국어 분위로 행해졌던 것이다.⁴⁵⁾

그러한 「국어운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계급의 구어에 기초한 근대문장어의 확립운동으로도 구체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서양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특징을 파악해 볼 때 우선 동아시아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동아시아보다 6세기말 빨리 언문일치화 된 서구의 문장들을 번역해 내는 과정에서 발달되어 나왔다. 그것은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1900년을 전후한 20년 간의 동아시아인에 있어서나, 1400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200년 간의 서구인에 있어서나 그

들에 있어서의 언문일치운동이란 이전의 인간들이 쓰던 말과 글을 가지고 당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내려는 입장을 버리고, 당대 자신들이 쓰는 말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당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내지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에서나 서구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핵심은 당대의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내지는 것이었다. 이 경우 서구인들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말들을 표현해 내려는 문자는 로마자였다. 로마자란 배우면 누구나 다 단기간에 알 수 있는 표음문자이다. 따라서 그들에 있어서의 표기상의 문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난해한 한자로서가 아니라 로마자 못지 않게 쉬운 자기민족의 글자인 한글이나 가나로 표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문자인 한글이나 가나를 천시하고 한문을 숭상해 온 한국인과 일본인들에 있어서는 일대의 의식전환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였다.

반면 서구인들에 있어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라틴어라고 하는 하나의 라틴 민족이 사용해오던 문어문장으로부터 그들의 표기수단인 로마자를 취해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자신들의 말을 기록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라틴어라고 하는 하나의 외국어로부터 표기수단인 로마자를 취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말들을 기록해 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결국은 편리를 위해 권위를 버리고 신성을 무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들이 언문일치 운동을 행해가는 데 있어서는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동서양의 언문일치 운동에 있어서의 이상과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동서양의 언문일치 운동은 유교에 기초한 한자문화로부터 동아시아인들의 민족문화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교에 기초한 로마자 문화로부터 서구인들의 민족문화를 해방시켜내는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들이 사용해 오던 공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냄으로써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확립시켜 나갔고 그 민족들이 사용해 오던 말들을 통일시켜 자신들의 하나의 생존단위로서 민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재구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인간들의 「속어」에 대한 관심이 어떤 단계에 와서는 국민의식을 각성시켜 나갔고, 결국에 가서는 내셔널리즘을 형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B·R 앤더슨(Benedict R. Anderson)과 같은 학자가 지적하고 있

듯이 언문일치운동이야말로 「내셔널리즘의 기원」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⁴⁶⁾ B·R 앤더슨은 「19세기는 유럽과 그 인접주변지역에서 속어의 사전편찬자, 문법학자, 언어학자, 문학자의 황금시대다. 이들 전문적 지식인의 정력적 활동은 1770년부터 1830년에 걸쳐서의 남북아메리카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의 형성이 중핵적 역할을 행해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그러한 언문일치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동서양은 모두 봉건사회였었다. 봉건사회란 계급사회이며, 극소수의 상류층을 점유하는 귀족 승려중심의 사회였다. 그러나 언문일치 운동은 그러한 극소수의 귀족중심의 사회를 대다수의 하류층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행해 나왔다. 당대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당대의 인간들의 생각들을 표현해냄으로써 그들 중심의 세계를 형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문일치 운동은 군주 중심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고, 시민중심의 사회체제를 성립시켜나가는 역할을 행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지닌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표현해내서 그것들을 문장으로 정리해가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근대적 자아를 확립시켜 나가게끔 했던 것이다.

Ⅲ. 결 론 : 한국과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의 의미 재고

현재의 시점에서 고찰해 볼 때 100여 년 전에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 운동은 어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 될 수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왕조국가는 철기와 문자의 발명을 계기로 성립되어 나왔다. 철기를 재빨리 손에 넣은 부족집단이 다른 부족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인접지역을 통일해 혈연관계로 뭉어진 집단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 뭉어진 국가라고 하는 집단으로 전환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인접 지역의 다른 부족들을 점령해 지역을 기초로 해서 왕조국가를 성립시킨 집단은 무력만으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다른 집단들을 다루어 갈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문자를 만들어서라도 통일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집단들까지도 지배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로마제국이나 한나라의 경우처럼 지배적 위치에 있던 집단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쓰던 말을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정리된 문자로 기록해 내서 그것을 피지배층의 인간들에게 읽혀가게 했던 것은 당연했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계층의 인간들의 말을 로마문자나 한자로 표현해 내서 그것들을 피지배층의 인간들에게 읽혀가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층의 인간들로서는 자신들이 쓰고 있는 말 그 외에도 지배층 인간들의 말을 알아야 했었다. 고전라틴어와 한문이 바로 이렇게 해서 성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배층의 인간들에 있어서의 글이란 자신들 중심의 사회를 유지시켜가고 피지배층의 인간들을 다스려 가고 지배해 가는 수단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지배층의 인간들에 있어서의 글이란 그것이 좋은 나쁜 지배층의 인간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와서 그동안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인간들은 지배층의 인간들로부터 표기수단인 문자말을 빌려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말을 표기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지배층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쓰는 말을 그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어 냈으로써 그러한 활동을 통해 서구의 사회를 자신들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동안 피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던 인간들은 자신 중심의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피지배 상태에 처해 있던 인간들에 의해 건설된 근대 시민국가였던 것이다. 이렇게 서구의 피지배층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말들을 알파벳문자로 기록해내서 새로운 문장어를 만들어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냈으로써 문어와 구어를 일치시켜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문어와 구어가 일치되어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근대시민국가를 형성시켜서 이제 동아시아로 전진해 나왔다. 당시까지도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고대의 왕조 국가의 사회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구의 근대 시민국가의 문물들을 접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문물이 그들보다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원인들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국력집결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각 국들은 국력집결의 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문자를 취해내고 또 그것에 의한 표기체계를 정리해내서 그것으로 그동안 피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기록해 내서 서구의 경우처럼 언문일치의 문장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구에서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언문일치 운동이란 결국은 근대국가를 성립

시킨 시민 세력들이 고대 왕조국가를 형성시킨 주체세력들의 구어에 기초해서 성립되어 나왔던 문장어를 폐기하고 자신들의 구어에 기초한 문장어를 확립시켜나갔던 운동이었다 할 수 있다. 고대의 문어가 한 지역과 그 지역의 인간들의 사고와 감정을 통일 시켜왔듯이, 근대의 구어문장도 근대 국민국가의 인간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나갔던 것이다.⁴⁸⁾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석 될 수 있다. 이상에서 파악한 것을 가지고 동서의 언문일치 운동을 고찰 해볼 때 그것은 크게 말해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통해 행해졌다고 말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봉건 국가시대에서의 문장을 통한 의사전달 시대에서 봉건국가가 시민국가로 전환해 나오는 과정에서 구어(口語)를 통한 의사 전달시대로의 전환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시민국가시대에서의 구어를 통한 의사전달 시대에서의 구어에 기초해 형성된 문장을 통한 의사 전달 시대로의 전환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언문일치 운동은 귀족들의 문장중심시대에서 시민들의 구어중심시대를 거쳐 다시 그 구어에 기초해 형성되어 나온 문장중심시대로 단계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구어에 기초해 확립된 문장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청각 우위」시대를 벗어나서 「시각 우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⁴⁹⁾ 한 시대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라디오는 구어를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이다. 또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의 구어의 한계성이 또 다른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문장이라고 하는 형식을 창출해 냈다. 그러했듯이 라디오 문화를 기초로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로 성립되어 나온 TV문화는 라디오 문화의 한계성이 자각됨으로써 형성되어 나왔음에 틀림없다. 의사전달의 한 수단으로서의 말의 본질은 청각성에 있다. 이에 대하여 글의 경우는 시각성에 있다. 현재 우리는 영화, 컴퓨터,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이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의 중요한 의사전달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일세기전 근대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아 일으켰던 언문일치운동을 통해서 시각적 기초체계를 버리고 청각적 기초체계를 취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언어의 본질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사이에 행해지는 의사전달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 있어서의 시각적 체험이 청각적 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적 역

할을 행해왔고, 또 그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은 청각보다는 시각에 기초해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인간에 있어서의 의사전달의 최고의 수단은 언어(言語, Language)이고, 그것은 순수 우리말로써 「말」이라는 의미이다. 말이란 인간이 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소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때 말이란 청각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소리가 말로서 존재하려면 그 소리를 만든 인간이 그 소리를 듣는 인간에게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전달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것을 듣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것을 듣는 인간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자가 소리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만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소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말은 어떤 이미지를 함유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의 말의 본질은 청각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각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의 본질을 청각성으로부터가 아니고, 시각성으로부터 찾으려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보다 말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컨대 말은 돌이나 불 등과 같이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문자는 철기 시대에 와서야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말이 언제부터 어떠한 집단에 이런 통일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러한 통일은 문자가 발명되고 그것의 통일이 이루어 그것에 의해 말이 기록되어진 이후의 일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말은 글에 의해 다시 말해 문자에 잡힌 말에 의해 통일되어 나온 것이다.

구석기 시대에 한 인간이 새나 동물의 경우처럼 어떤 소리를 내서 다른 인간에게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분명 어떤 손짓을 만들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도 했던 인간이 있을 것이다. 또 눈 속의 어떤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이 인간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도 인식해 낼 수도 있었던 존재였음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어떤 문자를 만들어쓰기 이전에는 손짓과 같은 어떤 동작이나 일종의 그림 문자와 같은 것 등으로 의사전달을 행해 왔었다. 인류의 역사에는 문자시대 이전 긴 그림문자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각은 소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 소리는 공기를 통해 진행해간다. 그러나 시각은 빛

을 통해 만들어지고 빛은 공기가 없는 진공을 통해서도 진행해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인간에 있어서의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의 시각은 청각보다 훨씬 더 그 역사성이 깊다고 하는 사실이다.

끝으로 언어관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언문일치 운동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이 논해질 수 있다. 동아시아의 언문일치 운동을 발단시켰던 서구의 언문일치 문장은 르네상스 운동이나 고대로마제국의 성립 등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BC 3천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상형문자의 일종인 설형문자(楔形文字)를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아마도 최초로 문자문화를 일으킨 수메르인이나 그로부터 BC 2천여 년경 이집트 지역에서 상형문자를 만들어서 문자생활을 행했던 고대 이집트인의 언어관까지도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 양 지역의 상형문자들은 그 두 지역을 드나들면서 무역을 행해오던 페니키아인의 손에 의해 BC 1200 여 년경에 와서 하나의 표음문자로 전환해 나왔다.⁵⁰⁾

그 후 그것은 페니키아의 상인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 쪽으로 전달되어 그리스 문자의 모체가 된다. 그 다음 그리스 문자는 로마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로마문자로 변형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메르 인과 고대 이집트인의 표의 문자가 표음문자로 전환해 나왔던 것은 샘족으로 수메르인을 정복시킨 아카드인의 후예인 페니키아인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샘족은 그리스도교의 모체인 유대교를 성립시켰던 집단이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언어관은 바로 이 샘족의 언어관에서 유래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구인들의 문자는 이미 BC 1200여 년 전에 시각기호인 표의문자에서 청각기호인 표음문자로 전환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때이래 줄곧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인간들은 청각에 기초한 언어관을 소유해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중국은 상형문자로 출발한 한자를 상형문자의 상태로 줄곧 유지시켜 왔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한자를 15세기 중반까지 그대로 써 오다가, 표음문자의 일종의 한글을 만들어 한자와 더불어 써 오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는 6세기가 빠른 9세기 중반에 한자를 기초로해서 표음문자의 일종인 가나를 만들어 한자와 함께 써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 중국의 표의문자로부터 표음문자를 만들어 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국사회를 주도해 갔던 사대부 층의 인간들에게는 쓰여지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도 당시의 사회를 주도해 갔던 사람들에게는 가나문 보다는 한문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가 표현되었다. 그러

다가 한국과 일본은 근대 이후의 언문일치 운동을 계기로 가능한 한 자신들의 표음문자인 한글과 가나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는 쪽으로 전환해 나왔던 것이다.

언문일치 운동이후 그래도 일본의 경우는 화한훈효문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 초기에는 국한 혼용문과 한글문, 두 쪽 다를 사용해 오다가 근대로 들어와서는 주로 한글문을 사용해 가는 쪽으로 방향지워지고 있다. 요는 그러한 현상이 근대 언문일치 운동을 계기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시각기호관을 포기하고 청각기호관을 취하게 됨으로써 도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시각기호로서의 문자의 한계성이 다양한 영상들을 의사소통의 수단들로 창출해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표의 문자문화의 전통을 만들어 왔던 우리가 표음문자사용만을 고려해 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고 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찰된다.

【注】

- 1) 한국인이 한문을 사용해 가는 과정에서 구결, 이두, 향찰 등의 표기법이 성립되어 나왔던 것은 한국어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이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언어를 형태상으로 분류해 보면 고립어(孤立語, Isolated Language), 부착어(附着語, 혹은 요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굴절어(屈折語, Inflectal Language)의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독일의 비교언어학자 어거스트 쉘라이쳐(August Schleicher, 1821~1868) 같은 언어학자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고립어는 일명 단음절어(Monosyllabic Language)라고도 하여 중국어와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중국어는 한 말, 한 말이 일음절어로 되어 있고 동시에 어사(語詞)의 형태에 아무런 어법적인 관계를 보일만한 변화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어를 취해서 보면 품사를 분별하기 어렵고 다만 文을 이룸에 있어 그 文中의 위치에 따라 단어의 성격이 구별된다. 그럼으로 이를 열위어(列位語, Position Language)라고도 한다. 그럼으로 이 고립어는 일어일음절(一語一音節)인 관계로 동음어(同音語)가 대단히 많아 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성조(聲調)의 구별을 이용한다. 그래서 일명 또 성조어(Tone Language)라고도 한다.

다음 부착어는 독립된 존재의 자격이 없는 허자(虛字), 즉 형식어가 뜻을 보이는 독립어인 실사(實辭), 즉 개념어의 앞이나 가운데나 혹은 뒤에 붙어서 어법상의 관계를 보이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허사의 실사에 붙는 위치에 따라 앞에 오면 접두사(接頭辭), 뒤에 오면 접미사(接尾辭), 가운데 오면 삽입사(Infix)라 한다. 일본어는 이 부착어에 속하며 조사 혹은 조동사를 실사의 밑에 달아 붙여서 말의 뜻을 변경하여 간다.

끝으로 굴절어는 뜻을 나타내는 성분과 어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말을 가리킨다. 그런데 개념어에 혼합 혹은 밀착된 성분은 어법상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의 내부에서 그 음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밀착된 부분의 어미를 움직여서 말의 의미를 변경시킨다. 이를테면 영어의 stand가 과거로 될 때는 stood가 된다. 또 see는 saw(過)-seen(過分)이 되고, 또 look은 looked(過, 過分)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립어에 속하는 언어는 중국어, 安南語, 싸이암語, 미얀마語 등이고, 부착어에 속하는 언어는 한

- 국어를 위시해 일본어, 우랄알타이어족, 드라비디어족 등이다. 굴절어에 속하는 언어는 Indo-European 어족이 대부분이다.」(趙潤濟, 『國文學概說修正版』 <探求堂, 1973>, pp.14~15).
- 2) 金性洙, 『鄉歌 및 韓國借字考』 (청록출판사, 1980), p.141.
 - 3) 상동서, p.152.
 - 4) 崔垞, 『韓國新聞史』 (일조각, 1960), p.17.
 - 5) 中内敏夫 『日本教育のナショナルイズム』 (第三文明社, 1985), p.142.
 - 6) 상동서, p.14.
 - 7) 『지시신포』(時事新報), 1882년 3월 1일 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출판사로부터 창간된 일간신문.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도 하에서 『추구할 것은 국권신장 하나 밖에 없다.<求める所は國權興振の一點にあるのみ>』는 입장에서 창간된 신문.(창간사 참고) 1995년 『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 합병.
 - 8) 여중동, 『19세기 “한자-한글 섞어쓰기” 줄글에 대한 연구』(『한국언어문학15집』, 1977, p.4 참조)
 - 9) 崔垞, 『韓國新聞史』 p.28.
 - 10) 이에 앞서 각 개항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부산에서 『朝鮮時報』(旬刊, 1881년 12월 10일 창간), 인천에서 『朝鮮週商報』(週聞, 1889), 목포에서는 『木浦新報』(旬刊, 1898. 8) 등의 일본문(日本文) 신문들이 나타났다.(崔垞, 『韓國新聞史』, p.28 참고).
 - 11) 金敏洙, 『韓國語學史』 (一潮閣, 1964), p.95.
 - 12) 世界教育史研究會 編, 『朝鮮教育史』 (講談社, 1975), p.252.
 - 13) 金敏洙, 앞의 책, p.118.
 - 1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 4권』(지식산업사, 1986), p.239.
 - 15) 구어체의 성립은 구어의 주체가 확립됨으로써 행해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우선 문장을 기록해 내는 인간이 말을 행하는 인간의 입장을 취해서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인식해서 그 인식된 사물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냄으로써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어체의 성립은 말을 행하는 자가 사회의 주체로 확립되어 나오므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을 행할 수 있는 주체의 확립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언어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말을 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어떤 사물들의 유무를 판단해 내는 「이다」와 「하다」와 같은 단정의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단정의 시점을 기점으로 한 시제(時制)의 표현이다.
 - 16) 山本正秀 「言文一致體」(『岩波講座 日本語10文體』, 岩波書店, 1977), 311頁.
 - 17) 言語ト文章トヲ一致セメント欲セハ作ル所ノ文章ヲ讀シ聞ク者ヲシテ直ニ了解ス可カラシムヘシ聞ク者ヲシテ直ニ了解セシメント欲スレハ平生說話ノ言語ヲ用ヒサル可ラス平生說話ノ言語ヲ以テ文章ヲ作レハ即チ言文一致ナリ
 - 18) 山本正秀 「言文一致體」, 329頁.
 - 19) 상동서, 319.
 - 20) 『니혼쇼키』(日本書紀, 720)의 오진 덴노(応神天皇) 16년 조항에 「왕인(王仁)이 백제로부터 건너 오자, 태자 우지노와키이랏코(菟道稚郎子)가 그를 스승으로 해서 제전적(諸典籍)을 배웠다」로 되어 있고, 『고지키』(古事記, 712)의 오진 덴노(応神天皇) 조항에는 「백제로부터 와니키시(和邇吉師)와 논어 10권, 천자문 1권, 도합 11권이 공신(貢進)됐다」로 되어 있다.
 - 21) 大曾根章介 「漢文體」(『岩波講座 日本語 10文體』, 岩波書店, 1977), 55頁.
 - 22) 峰岸明 「記錄體」(『岩波講座 日本語 10文體』, 岩波書店, 1977), 203~204頁.
 - 23) 「口舌にすればは談話となり筆記にすればは文章となり口談筆記の兩般の趣を異にせざる様には佐渡事に奉存候」(前島密 「漢字御廢止之説」, 1867年 12月)
 - 24) 文部省 「外來語問題に關する獨逸における國語運動」(文部省, 國光印刷株式會社, 1918), 2頁.

- 25) 우에다 요로즈(上田萬年, 1868~1937)는 1885년 제국대학(현재 도쿄제국대학)의 문학부에 입학해 영국의 어용(御用) 외국인 교사 참버라인에 사사(師事)한다. 참버라인은 당시 도쿄제국대학에서 언어학·국어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1889~93년에 걸쳐 독일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1894년부터 제국대학교수로 임명되어 「박언학」(博言學, 언어학)을 담당한다. 그 후 그는 일본의 국어정책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행해 간다. 언문일치운동과 관련된 그의 기본적 입장은 「국어」(國語)의 표준 말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준말의 기준은 「도쿄 지방에서 당대의 일반시민들이 쓰는 구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문장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倉島長正 『「國語」と「國語辭典」の時代 上』 <小學館, 1997> 5~10頁).
- 26) 中内敏夫 『日本教育のナショナルリズム』(第三文明社, 1985), 20頁.
- 27) 山本正秀 「言文一致體」, 320頁.
- 28) 山本正秀 「言文一致體」, 332頁.
- 29) 상동서, 334頁.
- 30) 杉本つとむ 『近代日本語の成立と發展』(八坂書房, 1998), 405~410頁.
- 31) 黃曼君 主編 『中國近百年文學理論批評史(1895~1990)』(湖北教育出版社, 1997), p.237.
- 32) 張炯 外 周編 『中華文學通史 第五卷 近現代文學編』, 華芝出版社, 1995, p.131.
- 33) 上同書, p.441.
- 34)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 《言語文學》編輯委員會編 『中國大百科《言語文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出版發行, 1988), 「白話文運動」參考.
- 35) 현재 언어학자들은 서구인들의 언어는 인도·유럽어(Indo-European)족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1)게르만어계, (2)라틴어계, (3)슬라브어계로 3분된다. 영어와 독일어는 (1)게르만어계에 속하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2)라틴어계에,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등은 (3)슬라브어계에 속한다.(市河三喜他 編 『世界言語概説(上卷)』 <研究社, 2000>, 10~15頁)
- 36) Michael Townson, Mother-tongue and father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82.
- 37) 조성식, 『영어발달사』(한국문화사, 1994), p.106.
- 38) フロリアン・クルマス 『言語と國家』(山下公子 譯, 岩波書店, 1987).
- 39) Hans Henrich Hock & Brian D. Joseph,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Mouton de Gruyter:Berlin · New York, 1996, pp.331~333.
- 40) 世界教育史研究會 編 『ドイツ教育史 II』(講談社, 1977), 36~37頁.
- 41) イ・ヨンスク 『「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1996), 23頁.
- 42) 피테(J. G. Fichte)의 「독일국민에게 고한다」 Redem an die duesche Nation(1807), 마코레이(T. Macaulay)의 「교육에 대한 각서」 Minute on Education(1835)등 참조.
- 43) 加茂正一 『ドイツの國語醇化』(獨逸文化協會, 1944), 180~181頁.
- 44) 상동서, 188頁.
- 45) 상동서, 196頁.
- 46) 베네딕트·안더슨 『增補 想像의 공동體』(白石さや他 譯, NTT出版, 1997), 77頁.
- 47) 상동서, 124~125頁.
- 48) 주 L과 동일서. 전제서, 165頁.
- 49) L W.J 오ング 『聲の文化と文字の文化』(櫻井直文・他 譯, 藤原書店, 1999), 243頁.
- 50) 루이=ジャンカルポ에 『文字の世界史』(前島和也 譯, 河出言新社, 1998), 109~122 頁.

韓國と日本における言文一致運動の實狀と その意味

金采洙

本研究は、韓國と日本の近代化過程で行われた言文一致運動の實狀を考察し、その意味を再検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本人がここで論じようとする言文一致運動は、韓國と日本だけの現象ではなく、中國や西歐文化圏でも行われた。このような點を考慮して、より客觀的に言文一致運動の本質を明らかにするため、今までに民族や國民文化研究という次元の視覺を廢棄し、東アジアないしグローバル次元の視覺から文化現象の側面で韓國と日本における言文一致運動に接近してみる。

言文一致運動が韓國で最高潮に達したのは、1910年代の後半である。日本の場合はそれより30餘年の早い1880年代の後半である。當時の言文一致運動とは、一言で言えば、「文語」を「口語」に一致させようとする運動を指す。當時、このような言文一致運動を行った人々は、「文」中心よりは「言」中心の言語觀を受け入れたことを意味しており、それ以前の人々は「文」中心の言語觀を持っ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すなわち、西歐や東アジアにおける言文一致運動とは近代國家を成立させた市民階級が古代王朝國家を形成させた勢力の口語にもとづき成立された文章語を廢棄し、自分達の口語に基づいた文章語を確立させていった運動であった。古代の文語が一つの地域とその地域の間達達の思考と感情を統一させていったように、近代の口語文章も近代國民國家の間達達の「意識構造を變化させ」近代國民達を一つに統一させていっ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現在我々が一般的に使っている言文一致の文章は近代化の過程で行われた言文一致運動の結果から成り立ったものとして、「文」よりは「言」中心の言語觀に立脚し確立されたものだといえる。

次に、韓國と日本を始めとし、東アジアにおける言文一致運動は、大きく言って、次のような二つの段階を通して行われた。第一段階は、封建國家時代での文章を通じた意思傳達時代から封建國家が市民國家へと轉換する過程での口語を通じた意思傳達時代への轉換段階である。第二の段階は、市民國家時代における口語を通じた

意思傳達時代における口語にもとづいて形成された文章を通じた意思傳達時代への轉換段階である。

現在、我々は「聴覚優位」の時代から脱してテレビやインターネットや映畫など「視覚優位」の時代に生きている。また、20世紀中・後半に成立した記號論(semiotics)や文化記號論(semiotics of culture)で指摘しているように、我々人間にとって意思傳達の手段としての言葉の本質は聴覚性にあるのではなく、視覚性にあるといえる。しかし、韓國人と日本人は、近代言文一致運動をきっかけにして、このような視覚記號觀を棄て聴覚記號觀を受け入れ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しかし、視覚記號としての文字の限界性のため、意思疏通の手段として多様な畫像を創り出して行くこの時代に表意文字文化の傳統を持っていた我々が表音文字の使用だけを考慮するというのが、結局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を考え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